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 정부와 민간 힘 모아 통합 캠페인 브랜드(BI) 선포·전문가 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①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②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③ 스몸비* 무조건 금지,
 ④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⑤ 운행 전 무조건 점검, ⑥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

※ 6대 안전수칙



□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25. 4. 30 ~ '25. 12. 31)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SOCAR),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 TS 공식 유튜브: youtube.com/@TS_KOTSA

□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하여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점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휴식, 제한속도 준수, 안전운전 등)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5.8 생생정보)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면서,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유진	(044-201-3230)
		담당자	주무관	김범진	(044-201-3865)
<공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책임자	실 장	고경호	(054-459-7030)
		담당자	부 장	방효일	(054-459-7038)